

Date: 27 Tishrei 5787 (October 8, 2026)

Torah Portion: B'resheet

Topic: 창조된 세상, 파괴된 세상 (제 2 부)

이러한 이해력은 현인들이 토라 탐구에 부여하는 각별한 중요성을 밝혀줍니다. 탈무드는 하늘과 땅의 존속을 토라라는 영원한 언약과 연결시킵니다 (네다림 32a; 예레미야 33:25 참조). 볼로진의 랍비 하임(R' Chaim of Volozhin)은 그의 저서 『네페쉬 하하임(Nefesh HaChaim)』(4:11)에서 이 원리를 확장하여, 만약 전 세계에서 토라 탐구가 단 한 순간이라도 완전히 중단된다면 창조 세계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가르침은 토라를 단순한 계명의 집합이나 종교적 가르침의 원천이 아니라, 우주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는 영적 토대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들인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연구와 실천,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의 뜻을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적인 헌신을 통해 모든 세대에서 새롭게 되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창조와 파괴에 관한 가르침은 또 다른 심오한 원리, 즉 파괴 후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재건이라는 신성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미드라쉬가 이전 세상들이 소멸한 후 여호와 엘로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듯이, 인간 또한 실패와 실망, 상실을 겪은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울 영적인 내면의 힘을 발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건설하는 데는 용기와 비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룩한 성취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수년간의 노고와 수많은 밤을 지새운 시간, 재정적 자원,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나 결국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견고해 보였던 것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거세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이 재건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토라(가르침)는 파괴가 반드시 마지막 장(章)이 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무너져 내린 정신적, 감성적, 혈기적 그리고 육신의 어느 한 그것이, 더 위대한 새로운 한 층의 세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잃었다고 해서 그 성취를 위해 쏟은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은 끊임없는 성공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지혜와 겸손, 그리고 영적 성숙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성취 중 일부는 깊은 실패를 겪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창조의 본래 조화인 "영원한 생명"은 균형을 잃고 깨졌으며, 그 후대는 한 호흡과도 같은 찰나의 시간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게 됩니다. 미드라시와 혈통 남 유다를 통하여 전수된 신비주의 문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담은 먼 훗날에 태어날 후손은

다윗의 수명이 아주 짧을 것임을 예견하고 자신의 수명 중 70 년을 그가 받을 수 있는 날의 몫으로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담의 죽음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다윗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의 혈통에서 훗날 마쉬아흐(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쇠락의 시작처럼 보였던 그 사건 속에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 또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미쁘라임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예후다로 전해진 영적 문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영적 파멸의 문턱에 이를 만큼 그들 네웨쉬의 불결함의 49 단계까지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쁘라임에서의 구원과 그 뒤를 이은 7 주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바로 그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엘로힘과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겠다하는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노예 상태에 놓여 영적으로 위축되었던 그들이 토라를 수탁받은 민족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 과정에 또 다른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의 계시 직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라는 중대한 죄를 범하여 자신들이 막 받아들였던 언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모세의 중재와 회개,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의 자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처음에 돌판으로부터 나중에 심장에 새겨 주시는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신.29-30 ;렘. 31:31-34)

이어지는 לְפָנַי (성막;미슈칸)의 건립은 아도노이 여호와께서, 그 분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시는 엘로힘(하나님)의 임재를 이 한 민족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었습니다.

살롬

“호렙(*시내산) 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신. 29: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심장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엘로힘(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31-34)